

# 페퍼스, 기업은행 기세에 발목... ‘광주 불패’ 끝났다



폴세트 점전 끝 2-3 패...홈 첫 패배  
3연패 수렁...5일 GS칼텍스와 경기

‘광주 불패’가 멈췄다.  
여자프로배구 페퍼저축은행 AI페퍼스가 뜨거운 홈 관중의 응원에도 IBK기업은행 알토스의 기세를 꺾지 못하고 시즌 첫 홈 패배를 당했다.  
페퍼스는 30일 광주 페퍼스타디움에서 열린 진에어 2025-2026 V리그 여자부 2라운드 홈 경기에서 IBK기업은행에 세트스코어 2-3(21-25 25-13 19-25 25-18 7-15)으로 무릎을 꿇었다.  
페퍼스타디움 4000석은 일찌감치 매진됐고, 관중석을 가득 채운 함성에도 아쉬운 패배가 기록됐다. 이로써 페퍼스는 3연패의 늪에 빠졌다.  
1세트 흐름은 기업은행 쪽으로 먼저 기울었다. 기업은행의 킨켈라와 최정민이 연속 오픈 공격을 성공시키며 초반 리드를 잡았다.  
페퍼스는 박영아·조이의 킥오픈이 터지며 분위기를 반전시켰고, 시마무라의 중앙 속공과 임주은의 서브 에이스까지 나오면서 한때 6-3까지 앞서갔다. 하지만 흐름을 끊은 건 기업은행의 외국인 공격수 빅토리아였다.  
빅토리아가 3연속 득점을 올리며 순식간에 6-6 동점을 만들었고, 이후 경기는 17-17까지 치열한 접전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기업은행의 최정민이 3연속 득점을 책임지면서, 21-25로 첫 세트를 가져갔다.  
2세트에서는 압도적인 점수 차로 페퍼스가 승리를 가져왔다.  
페퍼스는 초반부터 블로킹 벽을 세우며 기업은행 공격을 차단해 스코어를 19-10까지 벌렸다. 이한비의 날카로운 서브가 기업은행 리시브 라인을 흔들었고, 점수 차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았다.

조이는 2세트에서만 10득점을 쏟아내며 에이스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줬고, 결국 페퍼스는 25-13으로 세트를 따내며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3세트 초반, 페퍼스의 범실과 수비 불안이 겹치며 스코어가 3-8까지 벌어졌다.  
그러자 시마무라와 조이가 다시 추격에 시동을 걸었다.  
기업은행 빅토리아의 공격이 조이의 블로킹에 막혔고, 반대로 방향을 바꾸자 이번에는 시마무라가 블로킹에 성공해 득점을 막았다.  
여기에 박은서의 서브 에이스, 이한비·조이의 연속 오픈 득점이 더해지면서 11-12, 1점 차까지 매섭게 추격했다.  
이어 14-17로 다시 점수 차가 벌어진 뒤에도 이한비와 박은서의 연속 오픈 성공으로 페퍼스가 19-20까지 따라붙었지만, 마지막 고비를 넘지 못했다.  
빅토리아가 4연속 오픈과 블로킹에 고루 성공하는 등 기업은행의 뒷심에 막힌 페퍼스가 19-25로 3세트를 내줬다.  
4세트 초반엔 다시 페퍼스의 조직력이 살아났다.  
시마무라의 속공과 오픈이 연달아 터지며 4-4 동점을 만든 뒤, 박은서의 스파이크와 블로킹까지 살아나면서 분위기를 확실하게 가져왔다.  
페퍼스는 빠른 템포의 공격으로 상대 수비를 흔들었다.  
점수는 21-13까지 벌어졌고, 박은서의 후위 공격과 조이의 오픈을 끝으로 25-18을 만들면서 세트를 가져왔다.  
경기를 원점으로 돌린 페퍼스가 5세트까지 승부



페퍼스는 30일 광주 페퍼스타디움에서 열린 진에어 2025-2026 V리그 여자부 2라운드 IBK기업은행과의 맞대결에서 블로킹을 시도하고 있는 임주은(왼쪽)과 박수빈. (KOVO 제공)

를 이어갔지만 홈 무패를 지키진 못했다  
세트 초반 기업은행의 빅토리아와 킨켈라가 고루 득점했고, 시마무라의 득점 이후 2-9까지 점수차가 벌어지며 분위기를 내줬다.  
페퍼스가 막판 추격에 나섰지만 7-15로 결국 5세트를 내주면서 홈 연승이 끊겼다.  
장소엔 감독은 “5세트 초반 시작부터 범실이 나

다 보니 선수들이 동력을 잃었던 것 같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는 말도 계속 했지만 점수 차이가 많이 나서 그게 잘 안된 것 같다”며 아쉬움을 전했다.  
이날 박수빈이 주전으로 나온 것에 대해 장 감독은 “시마무라에 대한 견제가 있어서 박수빈을 주전으로 넣었다. 스타팅에 대해서 부담이 있었던 것 같지만 그럼에도 잘 해낸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

끝으로 장 감독은 3연패에 대해서는 “승리만이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분위기가 살리자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페퍼스는 5일 오후 7시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GS칼텍스와의 맞대결을 갖는다. 페퍼스가 원정 경기에서 3연패를 끊어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박연수 기자 training@kwangju.co.kr

## 만리장성 넘은 한국농구, 12년 만 중국전 2연승 도전

월드컵 예선 1차전 80-76 승  
오늘 원주에서 2차전 경기

원정에서 중국을 상대로 3년 만의 승리를 거둔 한국 남자 농구 대표팀이 이번엔 홈 코트에서 12년 만의 중국전 2연승에 도전한다.  
전희철 서울 SK 감독이 임시로 지휘봉을 잡은 한국은 1일 오후 7시 원주 DB프로미 아레나에서 중국을 상대로 2027 국제농구연맹(FIBA) 월드컵 아시아 예선 1라운드 B조 2차전을 치른다.  
한국은 지난 28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1차전에서 중국을 80-76로 물리쳤다.  
2022년 7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치른 2022 FIBA 아시아컵 예선 1차전 이후 3년 4개월에 중국의 ‘만리장성’을 무너뜨리고 패자를 불렀다.  
한국의 ‘새 에이스’로 떠오른 이현중(나사카)이 월드컵 아시아 예선 역대 최다인 9개의 3점을 쏜 것을 포함해 33점을 쏟아내며 14리바운드를 몰아치며 승리의 주역으로 나섰다.  
한국은 내전집에 중국전 2연승에 도전한다.  
이번에도 승리한다면 홈 코트에서 12년 만에 중국전 승리를 기록한다.  
한국은 2013년 5월 인천에서 치러진 동아시아 농구선수권대회 결승전에서 중국을 이긴 바 있다.  
당시 대표팀은 여세를 몰아 3개월 뒤 필리핀에서 열린 FIBA 아시아선수권대회(현 아시아컵) 예선 1차전에서도 중국을 물리쳐 2연승을 기록했다.  
이후 한국은 중국을 상대로 한 번도 연승을 올리



8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린 남자 농구 2025 FIBA 아시아컵 조별리그 A조 2차전 한국과 카타르의 경기. 이현중이 포효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 못했다.  
이번에도 승리의 선봉엔 이현중이 설 것으로 보인다.  
높이에 외곽포를 겸비한 데다 수비에도 적극 가담하는 이현중이 2차전에서도 제 기량을 보여준다면 한국은 중국과 또 한 번 대등한 승부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1차전에서 13점 7어시스트를 올린 이정현(소노), 공격과 수비에 두루 능한 안영준(SK), 골 밑에서 상대의 힘을 빼줘야 할 이승현(현대모비스) 등 동료들의 활약도 중요하다.  
이현중은 1차전 후반 들어 중국의 집중 견제에 고립되는 모습을 보였고, 그러면서 한국의 리드 폭이 좁혀져 막판 진담 승부를 펼쳐야 했다.

216cm의 미국프로농구(NBA) 출신 센터 저우치, 208cm 포워드 장전린 등이 버틴 중국은 여전히 한국에 버거운 상대다.  
직전 경기 승리에도 한국의 중국전 통산 전적은 16승 36패로 크게 열세를 보인다.  
하지만 승리를 향한 한국 선수들의 의지는 높다. 특히 이현중은 지난 8월 아시아컵 8강 맞대결 패배를 설욕하려면 ‘2연승’은 해야 한다며 버르고 있다.  
이현중은 “솔직히 승리해서 기쁘지만 4쿼터에 나와선 안 될 턴오버가 많았고, 좀 더 쉽게 경기를 마무리할 수 있었는데 안일했던 것 같다. 좀 더 준비해서 중국과의 2차전을 이겨야 진짜 설욕이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바둑 레전드’ 이창호, 역대 최다승 타이 기록

통산 1968승...조훈현과 공동 1위

살아있는 ‘바둑 레전드’ 이창호(50) 9단이 마침내 역대 최다승 타이 기록을 수립했다.  
수도도시 완주의 주강인 이창호는 30일 성동구 마장로 한국기원 바둑TV 스튜디오에서 열린 2025 인크레디웨어 레전드리그 플레이오프(PO) 1차전에서 GOGO 양양의 2지명 최규병 9단을 241수 만에 흑 불계승으로 제압했다.  
이로써 이창호는 개인 통산 1968승(1부 814패)째를 수확해 스승 조훈현 9단과 최다승 공동 1위로 올라섰다.  
만 11세이던 1986년 8월 프로 입단한 이창호는 조영숙 조단(이하 당시 단)을 상대로 첫 승리를 거두고 ‘바둑 황제’를 향한 대장정에 나섰다.  
2000년 10월에는 안조영 6단을 꺾고 1천승을 수확한 이창호는 2010년 1월 1500승(상대 최철한 9단), 2021년 2월 1800승(상대 한용규 7단), 2024년 9월 1900승(상대 유창혁 9단)을 차례로 달성했다.  
39년여만에 조훈현과 어깨를 나란히 한 이창호



는 “최다승 기록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았지만, 주변에서 알려줘 얼마 전에 알게 됐다”며 “어느 기사와 대국해도 늘 어렵고, 앞으로도 좋은 내용의 바둑을 두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창호는 1일 열리는 레전드리그 플레이오프 2차전에서 역대 최다승 기록 경신에 도전한다.  
시니어 무대에서 활약 중인 이창호는 올해도 50승 13패로 뛰어난 기록을 과시하고 있다. /연합뉴스

## 피겨 임해나·권예, 동계 올림픽 출전 사실상 확정

피겨 스케이팅 아이스댄스 임해나·권예(경기일원)가 2026 밀라노-코르티나파럴림픽 동계 올림픽 출전을 사실상 확정했다.  
임해나·권예조는 30일 서울 양천구 목동아이스링크에서 열린 2025 전국남녀 피겨스케이팅 회장배 랭킹대회 아이스댄스 프리댄스에서 기술점수(TES) 62.62점, 예술점수(PCS) 49.56점, 합점 112.18점을 받았다. 둘은 쇼트 댄스 점수 75.82점을 합해 최종 합점 187.00점을 기록했다.  
임해나·권예조는 국내 유일의 시니어 아이스댄스팀으로 이번 대회에 홀로 출전에 사실상 올림픽 출전권을 확보했다. 아울러 내년 1월에 열리는 2026 ISU 피겨스케이팅 사대륙선수권대회 출전권도 따냈다. /연합뉴스

즐거움

문화산책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GAC 전시지원 공모전시  
호점몽 : 고미아 개인전

일시 : 2025-12-05(금) ~ 2025-12-31(수)  
공연 있는날 10:30 ~ 19:30  
공연 없는날 10:00 ~ 18: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  
문의 : 062-613-8357

광주시립교향악단 401회 정기연주회  
'2025 송년음악회 Winter Rhapsody'

일시 : 2025-12-12(금) 19:30  
장소 : 전남대학교 민주마루  
문의 : 062-613-8241